

독도박물관 소장 ‘해좌전도(海左全圖)’ · ‘신제여지전도(新製輿之全圖)’ 보존처리

나 미 선* · 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

국가기록원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록물의 보존을 위하여 민간 소장의 중요 기록물에 대한 ‘맞춤형 복원·복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12년 독도박물관에서 의뢰한 「신제여지전도(新製輿地全圖)」(1844)는 일본에서 발행한 지도로, 동해를 조선해로 표기하고 있으며, 「해좌전도(海左全圖)」(19세기)는 울릉도 독도에 대한 정확한 표기와 함께 역사와 지리에 대한 내용을 적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큰 중요한 기록물이다. 하지만 지도 제작 형식과 맞지 않는 표장 방법, 잘못된 배접 등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로 처리가 불가피하였기에 훼손상태 조사·해체·크리닝·결실부 보강·제작 형식에 맞춰 재표장 등의 작업을 거쳐 복원처리를 실시하였다.

I. 서론

‘동해’는 한국인이 2,000년 이상 사용해 오고 있는 명칭으로, “삼국사기(三國史記)” 동명왕편, 광개토대왕릉비, “팔도총도(八道總圖)”, “아국총도(我國總圖)”를 비롯한 다양한 사료와 고지도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일본해’라는 명칭은 1602년 마테오 리치(Matteo Ricci)의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에서 처음 사용된 명칭이라고 주장되는데, 일본인 스스로가 동해 수역의 지명을 ‘일본해’로 인식하지 않았음이 다양한 사료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특히, 일본은 19세기에 ‘일본해’ 사용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서양 고지도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일본해’ 명칭이 19세기에 확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변계약도(日本邊界略圖), (1809)”, “신정만국전도(新訂萬國全圖)(1810)”, “신제여지전도(新製輿地全圖)(1844)” 등 당시 일본에서 제작된 다수의 지도가 동해 수역을 ‘조선해(朝鮮海)’로 표기하고 있는 사실은 ‘일본해’ 명칭이 일

본에서조차 확립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¹⁾

「신제여지전도(新製輿地全圖)」는 1844년 일본이 발행한 지도로 세계를 동반구와 서반구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조선과 일본 사이의 해역을 ‘조선해’로 표기하고 있다. 이 지도는 19세기 당대 최고의 일본인 학자인 미쓰쿠리 쇼고(箕作省吾)²⁾가 프랑스인이 만든 세계지도를 바탕으로 제작한 것으로, 지도에는 일본 동쪽 바다를 ‘대일본해(大日本海)’로, 태평양은 ‘대동양(大東洋)’으로 각각 표기하고 있다. 지도 오른쪽에는 지도 제작에 관한 전문과 왼쪽 범례에는 지도에 사용된 기호 등을 설명하고 있다.

「해좌전도(海左全圖)」는 19세기 중엽에 제작된 대표적인 목판본(木版本) 전도(全圖)이며, 인쇄본 지도로 지금도 많이 남아 있다.³⁾ 18세기 정상기(鄭尙驥)의 동국지도(東國地圖) 이래로 축적된 성과가 잘 반영된 지도이며, 목판본이라는 점에서 조선 후

* 국가기록원 복원연구과 학예연구사 yeomin05@korea.kr

**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소재 문화재보존처리 전문기관 (TEL. 02-825-5006)

1) 외교부 홈페이지.

2) 미쓰쿠리 쇼고 箕作省吾(1821~1847) : 일본 에도막부(江戸幕府 1603~1867) 시대 대학자.

3) 주요 소장처는 서울대 규장각, 성신여대·영남대 박물관, 경희대 해정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송실대 기독교박물관 등이다.



그림1. 일본번계약도(일본공문서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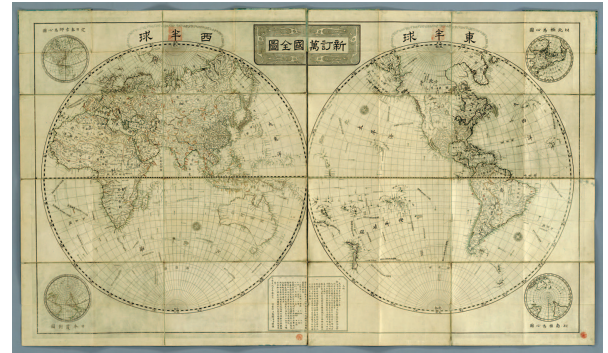


그림2. 신정만국전도(일본공문서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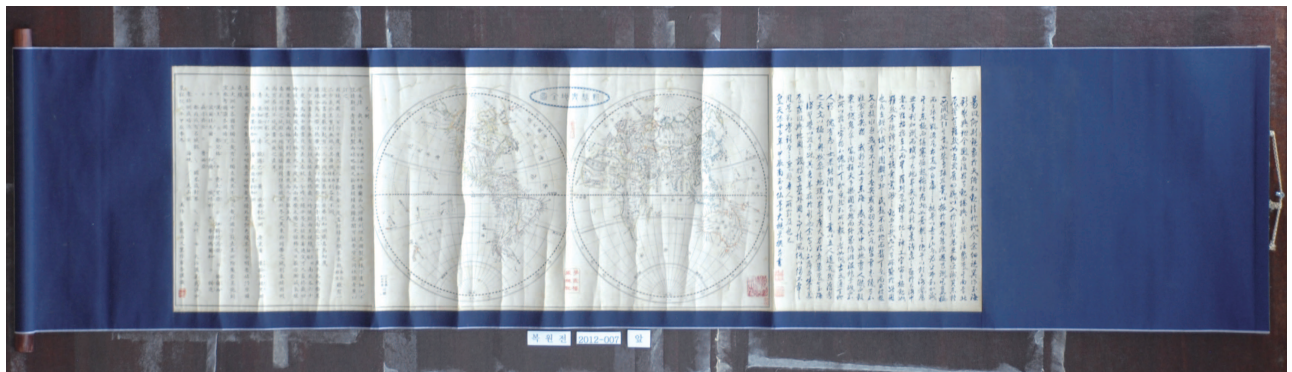


그림3. 신제여지전도 전체 183.5×40.7, 유물 120×35.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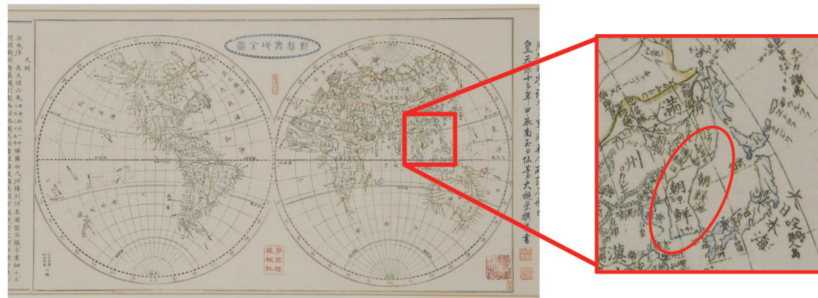


그림4. 신제여지전도 조선해 표기 부분

기에 지도에 대한 수요가 많았음을 반영하는 지도이다. 산천과 각 읍(邑), 역(驛), 도로 등이 자세히 그려져 있고, 여백에는 백두산 등 10여 개 명산의 위치와 산수에 대한 간략한 설명, 섬과 백두산 정계비 등에 대한 기록을 실고 있다. 지도 여백에는 지지(地誌)에 관련된 내용을 뽁뽁하게 기록해 놓아 지도(地圖)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⁴⁾

특히 주기(註記) 중에 “순조(純祖) 22년에 후주를 설치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순종(純宗)의 묘호가 순조(純祖)로 승격된 1857년 이후에 제작된 지도임을 알 수 있다. 산맥, 하천, 군현 등의 표현방법이 좀 더 간략한 형태로 표현되어 있으며, 육

4) 사이버 독도 <http://www.dokdo.go.kr/imageSolution.do?command=detail&solutionCode=14259>



그림5. 해좌전도 전체 75.4×184, 유물 63.1×114.6cm

로, 해로, 도경계 등도 비교적 소상하게 표시되어 있다. 우산(于山)으로 표기된 독도가 18세기 이후 지도의 전통에 따라 울릉도(鬱陵島) 바깥 동남쪽에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특히, 이 지도는 울릉도와 우산도(독도)가 정확히 표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울릉도의 크기 및 울릉도와 울진 사이의 뱃길을 표시하고 있으며 대마도도 함께 표기하고 있다. 바다에 해당되는 사방의 여백에는 울릉도와 우산국(독도)의 역사, 나라에 편입된 사실 등 각지 연혁과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울릉도에는 촌락 7개소가 남아 있으나 현재는 암석이 많아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다고 적고 있다.

5) 곰팡이로 인해 노란색 반점 형태로 변색된 모양.



그림6. 울릉도·우산도(독도)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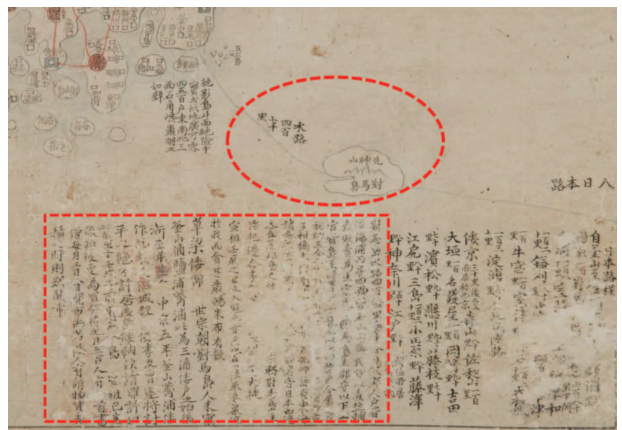


그림7. 대마도와 수로, 역사 등에 관한 기사

Ⅱ. 조사 및 분석

「신제여지전도」는 전문과 지도, 범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제작되었고, 가로로 제작된 지도이지만 세로 방향의 족자 형태로 표장되어 있었다. 비교적 최근에 개장한 상태로 보였으나 두꺼운 배접지와 강한 풀로 배접하여 말아서 보관하였기 때문에 지도의 세로 방향(족자의 가로 방향)으로 크랙이 심하게 발생하여 본지의 연결 부위는 뜰어 있었다. 뒷면 배접지 전면에 Foxing⁵⁾이 심각한 상태였으며, 지도를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인쇄를 한 후 여러 가지 채색을 하여 제작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본지의 상태는 양호해 보였으나 부분적으로 층해에 의



그림8. 본지 연결 부위의 들뜬 모습과 종해로 인한 결실부(신제여지전도)



그림9. 뒷면 전체에 발생한 Foxing(신제여지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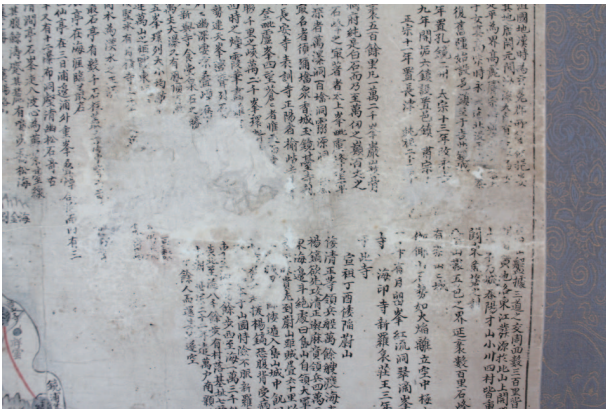


그림10. 본지가 결손되어 내용 식별이 어려운 부분(해좌전도)



그림11. 이전에 잘못 복원된 부분(해좌전도)

한 결실부가 있었고, 처리 전 지도의 크기는 120×35.4cm이다.

「해좌전도」 역시 최근에 표장한 상태로 보였으나 지도를 맡아줬던 가로 방향으로 심하게 크랙이 발생되었고, 상당히 얇은 본지의 중간 부분부터 하단까지는 결손 부위가 많아 내용 식별이 어려운 곳이 많았다. 지도를 해제한 뒤, 라이트테이블에서 관찰한 결과 이전에 보존처리를 했던 부분들이 관찰되었으나 본지와 보수지의 두께, 섬유 방향 등이 맞지 않아 모두 제거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지에 인쇄를 한 후 여러 가지 색상으로 채색하여 지역과 산수, 도로 등을 표시하였다. 처리 전 지도의 크기는 63.1×114.6cm이다.

Ⅲ. 복원처리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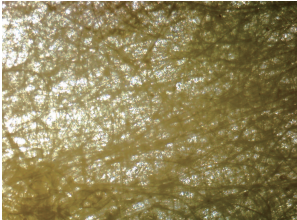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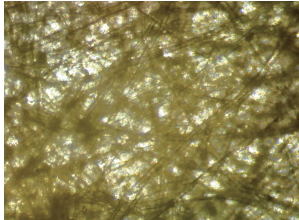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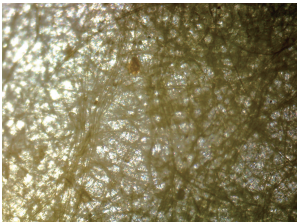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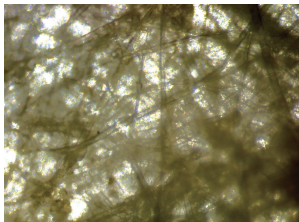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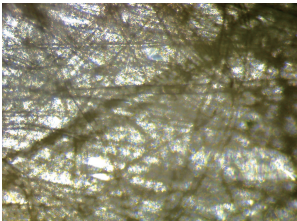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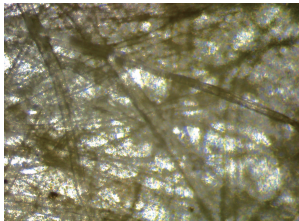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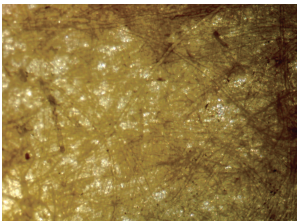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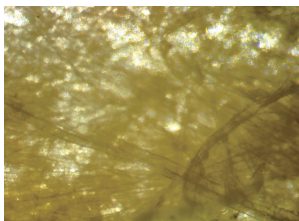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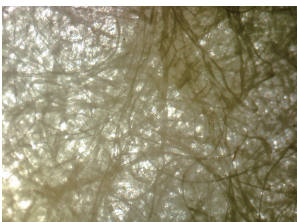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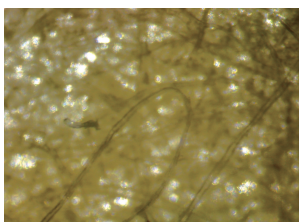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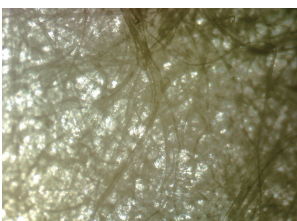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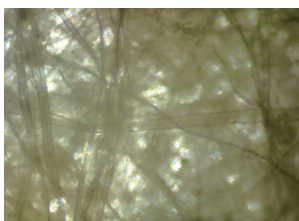
1. 상태조사 및 사진촬영

처리 전에 크기와 두께, 손상상태 등 물리적인 상태 조사와 산성도, 색차 등을 측정하였고, 디지털 비디오현미경(imagescope, 썸텍)을 이용하여 섬유를 조사하였다. 또한 처리 후 상태 비교를 위해 각 부분의 세부 사진과 전체 사진 등을 촬영하였다.



그림12. 두께 측정

표1. 섬유조사

Sample	섬유 사진(×160)	섬유 사진(×500)
신제여지전도 1차 배접지		
신제여지전도 2차 배접지		
신제여지전도 3차 배접지		
해좌전도 1차 배접지		
해좌전도 2차 배접지		
해좌전도 3차 배접지		

2. 해체

상태조사와 촬영 후, 회장비단과 상·하축을 분리하여 해체하였다.



그림13. 해좌전도 해체과정



그림14. 신제여지전도 해체 후 모습

3. 클리닝

표면의 먼지와 이물질 등을 우선 부드러운 붓을 이용하여 가볍게 털어주었다. 이후에 증류수를 이용하여 습식클리닝을 실시하였다.



그림15. 습식 클리닝(신제여지전도)

4. 페이지싱

해좌전도는 본지의 상태가 너무 취약하여 본지의 섬유를 고정하기 위해 앞면에 임시 보강지를 붙이는 페이지싱 처리를 하였다.



그림16. 해좌전도 페이지싱 처리

5. 구 배접지 제거

이전 수리 시에 배접했던 배접지와 보존처리로 찢김기한 부분을 제거하였다.



그림17. 구 배접지 제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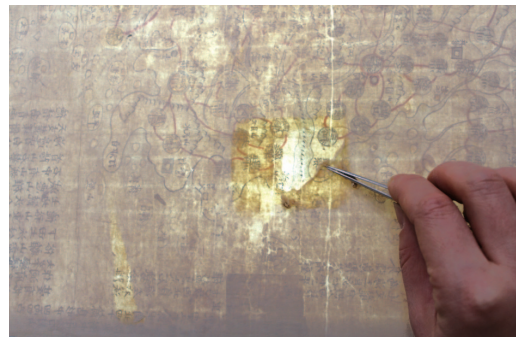


그림18. 이전에 보존처리했던 부분의 제거

6. 복원용 종이 제작

상태조사를 했던 자료를 근거로 결손 부위를 메울 종이를 준비하였다. 섬유의 종류, 종이의 두께와 밀도 등 물리적 특징을 고려하여 준비하였다. 조사된 종이의 색값(L*a*b)에 맞춰 천연 염료인 오리나무 열매로 염색하였다.



그림19. 오리나무 열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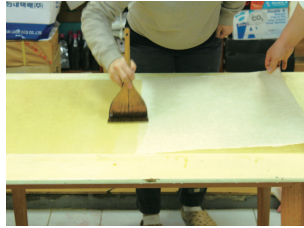


그림20. 염료로 종이 염색

7. 짜깁기

결손 부위 짜깁기는 천연염색으로 준비한 한지를 기록물의 두께와 밀도, 섬유 방향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그림21. 결손 부위 짜깁기

8. 배접

1차 배접은 오리나무 열매로 염색한 한지에 소맥전분 새풀⁶⁾을 사용하여 배접하였다. 2차 배접은 족자의 가로 꺾임을 줄이기 위해 유연성이 좋은 소맥전분 삭힌 풀⁷⁾을 사용하였다.

6) 밀가루를 식혀 단백질을 제거한 소맥전분을 물을 넣고 끓인 풀.

7) 소맥전분 새풀을 7~10년 동안 삭힌 풀.

8) 装演: 꾸밈과 갖춤이란 뜻으로 작품을 보존, 보관, 전시, 감상하기 위해 만든 모든 형태. 표구는 일본식 표기.



그림22. 해좌전도 1차 배접

9. 색맞춤

해좌전도의 짜깁기한 부분에 본래의 그림과 비슷한 색으로 색맞춤을 하였다. 이때 아교를 더해주어 염료가 번지지 않도록 보수 후에 처리하였다.



그림23. 색맞춤

10. 장황⁸⁾비단 준비

장황에 쓰일 손비단을 쪽을 이용하여 염색하여 준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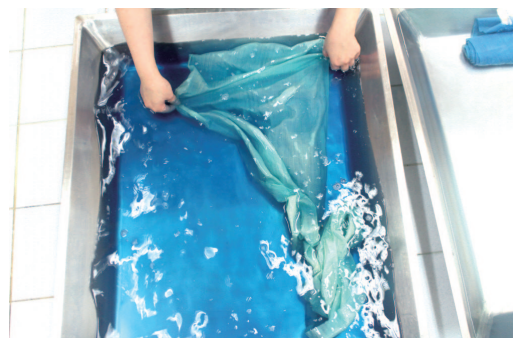


그림24. 쪽 염색

11. 족자 꾸미기와 액자 만들기

해좌전도는 쪽으로 염색해서 준비한 회장⁹⁾비단을 연결하여 족자 형태로 꾸몄다. 족자의 형태는 조선식 전통족자로 바꾸었다. 조선식 족자는 일본식 족자에 비해 형태가 단순하고 단아한 느낌이 들어 특히 지도와 같이 단순한 형태의 기록물에 잘 맞는다. 신제여지전도는 제작 방향과 맞게 가로로 감상할 수 있도록 액자 형태로 만들었다.



그림25. 회장 비단 붙여 족자 꾸미기



그림26. 액자를 만들기

12. 3차, 4차 배접

3차 배접은 2차 배접과 마찬가지로 소맥전분 삭힌 풀을 사용하여 배접하였다. 족자의 경우는 1차 배접과 마지막 배접을 제외한 2차와 3차 배접에는 호분이 들어간 미스지(일본 나라지방에서 제작)와 소맥전분 삭힌 풀을 사용한다. 미스지는 약알칼리성으로 기록물의 보존에 도움이 되며, 소맥전분 삭힌 풀은 시간이 경과하여도 족자가 딱딱해지지 않아 말았다 폼다를 반복하는 족자의 경우 가로썩임을 방지할 수 있다. 마지막 4차 배접은 염색한 닥지와 묶은 소맥전분 새풀을 사용하여 조선식 족자의 느낌이 나도록 하였다.

9) 회裝 : 병풍이나 족자의 가장자리를 다른 색깔의 띠로 돌아가며 대어 꾸임.



그림27. 해좌전도 4차 배접

13. 건조

배접이 끝난 기록물을 건조판에 붙여 건조하였다. 총 건조일 약 6주 중 1/2은 앞면으로 하였고 나머지 1/2은 뒤집어서 건조하였다.



그림28. 건조판에 건조

14. 마무리

신제여지전도는 액자들에 끼워 고리와 끈을 달아 마무리하였고, 해좌전도는 상·하측과 축수를 달아 마무리하였다.



그림29. 액자를 끼우기

15. 보관

해좌전도는 굵게말이 축에 말아서 오동나무 상자에 보관하였다.



그림30. 축 달기



그림31. 오동나무 상자에 넣어 보관



그림32. 신제여지전도 복원 전(위), 후(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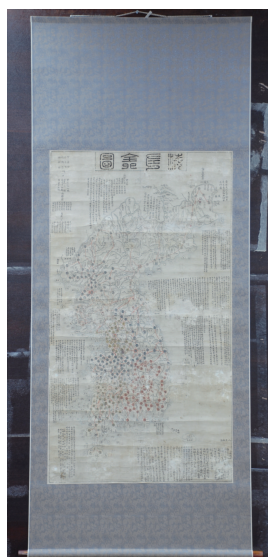


그림33. 해좌전도 복원 전(좌), 후(우)

IV. 결론 및 고찰

19세기 일본과 조선에서 각각 제작된 「신제여지전도」와 「해좌전도」를 약 6개월에 걸쳐 복원처리를 하였다. 「신제여지전도」는 본지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잘못된 개장방법으로 훼손이 가속화 될 것으로 판단되었고, 「해좌전도」는 아주 얇은 선지(宣紙)¹⁰⁾에 인쇄를 하였으나, 결손 부위가 많아 역시 훼손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복원처리를 실시하였다.

고지도는 제작 당시 세계를 인식하고 있는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로서 당대의 정치·사회·경제·문화를 읽을 수 있는 도구이자 영토분쟁 속에서 논리적 근거와 반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적으로 귀중한 기록유산이다. 신제여지전도는 일본 정부에서 제작한 공식 지도로, 동해를 조선해로 표기하고 있어 우리 영토주권을 수호하는 귀중한 증거 자료이다. 해좌전도 역시 19세기 독도를 우리나라의 영토로 확고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 자료로서 귀중한 기록물이다.

이렇듯 훼손되었던 귀중한 기록물에 복원처리를 통해 새생명을 불어넣음으로써 후대에 전승할 수 있게 된 점에 큰 의미를 둔다. 동시에 앞으로도 이 기록물들이 영구 보존될 수 있도록 더욱 깊은 관심과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10) 동양식 서화에 많이 쓰이는 종이.

| 참고문헌 |

1. 김혜정. 2012. 「고지도의 매력과 유혹」, 태학사.
2. 김기혁. 2006. 「우리나라 도서관·박물관 소장 고지도의 유형 및 관리 실태 연구」, 대한지리학회.
3. 양보경, 양윤정. 2006. 「木版本 朝鮮全圖〈海左全圖〉의 유형 연구」, 문화역사지리 제18권 제1호 통권28호.
4. 존 클라크 외, 김성은 옮김. 2007. 「지도박물관」, 서울 : 웅진지식하우스.
5. 심정보. 2007. 「일본에서 일본해 지명에 관한 연구동향」, 7권(2호), 「한국지도학회」.
6. 이기석. 2008. 「동해(東海) 지리 명칭의 역사와 국제적 표준화를 위한 방안」, 「지명의 지리학」, 서울 : 푸른길.
7. 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 2012. 「제주삼읍도총지도 보존처리 보고서」, 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
8. 정지연. 2010. 「조선 후기 불화의 상황 연구」, 용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